

광주시 6조3000억원 어디서…

2020년까지 매입해야 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49곳

재원조달 방안 빠진 집행계획 공고…국비지원 없인 손 못대

국토계획법에 따라 광주시가 오는 2020년까지 매입해 조성해야 할 공원, 도로 등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1600만여㎡에 이르며 이에 들어가는 비용은 무려 6조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시는 매년 6000억 원 이상을 배정해 이를 시설의 부지를 매입·조성해야 하지만 열악한 시 재정을 감안할 때 국비 지원이나 매입시기 연장 등이 대책이 없는 한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시는 최근 지난 4월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는 2020년까지 매입 및 조성해야 하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49개소(1603만6226㎡)에 대한 단계별 집

행계획을 공고했다. 1단계(2011~2013년)와 2단계(2014년~2016년) 이후로 나눠 보상과 조성공사를 추진하며 여기에 필요한 재원은 모두 6조3000억원에 달한다.

이 계획은 광주시가 지난 2009년 이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했지만 재정이 부족해 그동안 집행하지 못한 공원·도로·녹지·광장·유원지·학교 등에 대한 대책을 담고 있다. 공원의 경우 31곳(1059만6722㎡)에 2조 8052억9000만원, 도로는 77곳(371만 1526㎡) 및 광장 6곳(7만7,984㎡)에 8408억9500만원, 녹지는 10곳(56만 9476㎡)에 1993억1700만원, 지산유원지 1곳(48만1597㎡)에는 3265억

3100만원 등의 재원을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단계별 집행계획에는 재원 조달 방안이 빠져 있어 '말뿐인 계획'이라는 지적이다. 광주시 재정 여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이처럼 천문학적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 현재 미집행 면적이 1055만 6030㎡로, 전체 미집행 시설 면적의 65.8%를 차지하고 있는 공원의 경우 전체를 매입·조성하는데 2조 8052억 9000만원이 필요하지만 광주시는 매년 300억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는데 그치고 있다. 공원뿐만 아니라 도로, 녹지, 광장 등에도 매년 1000억원

이상을 투입해야 하지만 이는 비현실적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광주시는 이에 따라 정부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한 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시의 전체 예산 중 가용예산은 2000억 원 정도로 이를 모두 도시계획시설에 투자할 수는 없으며, 그렇게 해서는 도시 기능이 마비될 것"이라며 "전국 시도지사정책협의회에서 재원 대책을 논의하고 있으며, 다른 광역 지방자치단체 등과 연대해 협력을 찾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공원,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입이 장기간 미뤄지면서 토지 소유주, 인근 주민 등의 민원이 쇄도하자 정부는 올초 국토계획법을 개정, 각 지방자치단체가 2009년 이전 결정분에 대해서 2020년까지, 그 후 지정된 것은 고시 후 20년 이내에 매입하도록 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동북아 6국 평화공동체 만들자" DJ서거 2주년 국제학술회의

영보·군사·경제적 충돌이 빈번한 동북아시아에 항구적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한국·일본·북한·대만·북한·중국·몽골 등 6국이 참가하는 지역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관련기사 5면>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2주기를 맞아 광주일보가 10일 전남도·목포시·신안군과 공동주최한 국제학술 회의에서 박경서 대학원 석좌교수(전 대한민국 인권대사·인권위원회 위원장)는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의

공동번영을 주장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상을 실천하는 최선의 길은 한국정부가 주도하여 동북아 6국 공동체를 결성하는 것"이라며 "이 공동체는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공동의 관심사, 즉 노동인력의 원활한 교류, 쓰나미·황사에 대한 공동대응같은 실질적인 문제에 대한 협력으로 시작해 향후 EU나 아세안 같은 수준으로 격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목포 오거리문화센터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서 박 교수는 "1957년 프랑스의 철강과 서독의 석탄을 자유롭게 사용하고 싶은 6개국(프랑스·서독·이탈리아+베네룩스 3국)이 로마조약을 맺고 ECSC(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를 발족한 것이 50년만에 EU라는 강력한 국가연합체제로 성장하듯, 동북아 6국이 첫발을 뗀다면 가장 효과적인 평화공동체로 발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특히 중국과 북한 몽골

이 일본과 한국 대만에 노동인력을 공급하고 그 효과로 각국 경제격차가 줄어들다면 이는 어떤 국제 경제프로그램보다 강력한 성과를 낼 수 있으며 환경문제, 기후변화문제, 보건의

문제등으로 협력을 확대해 간다면 최단시일 내에 정치·군사·영토적 갈등문제까지 직접 다루는 공동체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목포=박현진 문화선임기자 jhpark@

신안군 특별재난지역 선포될 듯

전남 태풍 '무이파' 피해 600억원 육박

신안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될 것으로 보인다.

농림수산식품부 서해어업관리단은 10일 제9호 태풍 '무이파'로 피해를 입은 가거도 방파제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300억원에 이르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예상했다.

어업관리단은 정확한 피해 규모를 집계하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방파제 240m의

상부콘크리트가 파손되거나 균열이 생기는 피해를 입었고 방파제를 둘러싼 64t짜리 트레리포드 700여개가 유실된 것을 확인했다. 어업관리단측은 "바닷물 속에 설치된 트레리포트 유실 여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면서 "1차 조사를 토대로 잠정 피해액을 3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이대로라면 정부가 연간 재정규모를 기준으로 마련한 특별재난지역 선

포 기준 피해액(50억)을 훨씬 넘어서 민관 특별재난지역 선포 가능성은 크다는 게 전남도측 설명이다. 신안군은 지난해 태풍 곤스로 77억8000만 원의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전남도는 10일 태풍 무이파로 인한 전남의 재산 피해 규모가 246억원에 이른 것으로 잠정집계했다. 해양 양

식시설에 대한 피해 현황이 정확히 집계되지 않은데다, 벼 복작 및 낙과 피해, 수산 생물 피해액을 제외한 것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전체 피해 규모는 훨씬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전북지역도 9일 쏟아진 폭우로 2명이 숨지거나 실종되고 도로 36곳이 유실되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

/김지기자 dok2000@kwangju.co.kr

정읍 죄악 물난리…처절한 복구

지난 9일 전북 정읍시에 하루 420mm가 넘는 기록적인 '물 폭탄'이 쏟아 지면서 산외면 한우마을 상가 전체가 침수돼 폐허로 변했다. 폭우가 그

친 10일 정읍시와 군이 중장비 등을 동원해 복구작업을 벌이고 있다. ▶관련기사 11면 /전북일보=축성수 기자

지난 9일 전북 정읍시에 하루 420mm가 넘는 기록적인 '물 폭탄'이 쏟아

지면서 산외면 한우마을 상가 전체가 침수돼 폐허로 변했다. 폭우가 그

친 10일 정읍시와 군이 중장비 등을 동원해 복구작업을 벌이고 있다. ▶관련기사 11면

/전북일보=축성수 기자

지난 9일 전북 정읍시에 하루 420mm가 넘는 기록적인 '물 폭탄'이 쏟아

지면서 산외면 한우마을 상가 전체가 침수돼 폐허로 변했다. 폭우가 그

친 10일 정읍시와 군이 중장비 등을 동원해 복구작업을 벌이고 있다. ▶관련기사 11면

/전북일보=축성수 기자

지난 9일 전북 정읍시에 하루 420mm가 넘는 기록적인 '물 폭탄'이 쏟아

지면서 산외면 한우마을 상가 전체가 침수돼 폐허로 변했다. 폭우가 그

친 10일 정읍시와 군이 중장비 등을 동원해 복구작업을 벌이고 있다. ▶관련기사 11면

/전북일보=축성수 기자

지난 9일 전북 정읍시에 하루 420mm가 넘는 기록적인 '물 폭탄'이 쏟아

지면서 산외면 한우마을 상가 전체가 침수돼 폐허로 변했다. 폭우가 그

친 10일 정읍시와 군이 중장비 등을 동원해 복구작업을 벌이고 있다. ▶관련기사 11면

/전북일보=축성수 기자

지난 9일 전북 정읍시에 하루 420mm가 넘는 기록적인 '물 폭탄'이 쏟아

지면서 산외면 한우마을 상가 전체가 침수돼 폐허로 변했다. 폭우가 그

친 10일 정읍시와 군이 중장비 등을 동원해 복구작업을 벌이고 있다. ▶관련기사 11면

/전북일보=축성수 기자

지난 9일 전북 정읍시에 하루 420mm가 넘는 기록적인 '물 폭탄'이 쏟아

지면서 산외면 한우마을 상가 전체가 침수돼 폐허로 변했다. 폭우가 그

친 10일 정읍시와 군이 중장비 등을 동원해 복구작업을 벌이고 있다. ▶관련기사 11면

/전북일보=축성수 기자

지난 9일 전북 정읍시에 하루 420mm가 넘는 기록적인 '물 폭탄'이 쏟아

지면서 산외면 한우마을 상가 전체가 침수돼 폐허로 변했다. 폭우가 그

친 10일 정읍시와 군이 중장비 등을 동원해 복구작업을 벌이고 있다. ▶관련기사 11면

/전북일보=축성수 기자

지난 9일 전북 정읍시에 하루 420mm가 넘는 기록적인 '물 폭탄'이 쏟아

지면서 산외면 한우마을 상가 전체가 침수돼 폐허로 변했다. 폭우가 그

친 10일 정읍시와 군이 중장비 등을 동원해 복구작업을 벌이고 있다. ▶관련기사 11면

/전북일보=축성수 기자

지난 9일 전북 정읍시에 하루 420mm가 넘는 기록적인 '물 폭탄'이 쏟아

지면서 산외면 한우마을 상가 전체가 침수돼 폐허로 변했다. 폭우가 그

친 10일 정읍시와 군이 중장비 등을 동원해 복구작업을 벌이고 있다. ▶관련기사 11면

/전북일보=축성수 기자

지난 9일 전북 정읍시에 하루 420mm가 넘는 기록적인 '물 폭탄'이 쏟아

지면서 산외면 한우마을 상가 전체가 침수돼 폐허로 변했다. 폭우가 그

친 10일 정읍시와 군이 중장비 등을 동원해 복구작업을 벌이고 있다. ▶관련기사 11면

/전북일보=축성수 기자

지난 9일 전북 정읍시에 하루 420mm가 넘는 기록적인 '물 폭탄'이 쏟아

지면서 산외면 한우마을 상가 전체가 침수돼 폐허로 변했다. 폭우가 그

친 10일 정읍시와 군이 중장비 등을 동원해 복구작업을 벌이고 있다. ▶관련기사 11면

/전북일보=축성수 기자

학교설립 57주년 (1954~2011)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입학 학부 062-605-11144
대학원 062-605-11155

인터넷 홈페이지
www.kwangs.ac.kr

전화 062-605-11144
팩스 062-605-11155

E-mail: info@kwangs.ac.kr

인터넷 홈페이지
www.kwangs.ac.kr

전화 062-605-11144
팩스 062-605-11155

E-mail: info@kwangs.ac.kr

인터넷 홈페이지
www.kwangs.ac.kr

전화 062-605-11144
팩스 062-605-11155

E-mail: info@kwangs.ac.kr